

朝鮮後期社會 中人層의 西教 受容

—中人 動向의 一側面—

李 元 淳

序 語

一. 초기교회의 中人指導者

(1) 譯官系中人の 西教 受容

(2) 醫藥系中人の 西教 受容

二. 초기천주교회의 中人信徒

三. 中人層 天主信仰 受容의 社會性

結 語

序 語

조선후기에 추진된 경제생활의 진전은 양반 중심의 中世的 身分制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것은 각 신분층의 階層內 身分分化和 신분상승 노력에 따른 身分移動과 부자유 신분층의 점진적 身分解放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사회에서 身分上昇의 노력을 집요하게 추진한 사회부류는 차대 받던 兩班庶孽과 技術職中人 및 富裕庶民層이었다. 이들의 신분 상승 운동은 정조 대부터 순조·헌종·철종 대에 걸친 庶孽許通運動과 中人通淸運動으로 추진되었고 庶民層 身分上昇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의 신분 상승 운동은 英·正 대에 걸쳐 그들이 쌓아 올린 경제기반과 문화역량이 바탕되어 전개된 것이다.

서얼허통운동과 중인통칭운동의 시기는 「西學」 연구를 통하여 補儒論的天主信仰에 도달한 南人系 少壯學人和 漢城 中人層에 의해 교회가 창설되고 거듭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활동을 조직화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한국교회 초기발전의 시기였으며, 창설 당시의 知識人中心教會가 大衆教會로 점차 탈바꿈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周知하다시피 조선 후기 사회의 천주신앙의 수용은 明·淸에서 도입된 「漢譯西學書」에 대한 학문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수요자들은 洙泗學的 儒學으로의 回歸에 의한 實學經學을 바탕으로, 漢譯西學書의 天主를 이해하게 되어 西教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신

양에의 도달과 교회 창설의 주역은 知識層인 양반과 일부 선각적 중인들이었다. 中人層은 비록 漢譯西學書 연구의 단계에는 직접 간여치 않았으나⁽¹⁾, 李承薰의 귀국 후 시작되는 천주신앙실천과 교회창설 그리고 초기적 발전에는 주목할만한 인물들의 활동이 있었다. 즉 金範禹·崔仁吉·崔昌顯·崔必泰·池璜 등의 중인층 인사들이 초기 교회와 깊숙히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中人層의 西教 수용과 실천을 教會史의 측면에서 규명하기 보다, 조선 후기 사회의 脫性理學社會體制의 동태와 연관시켜 그것의 社會的 意義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稿가 의도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중인층 지도자를 논고하고, 다음에 초기 교회에서 차지하는 중인층의 신앙수용의 실태를 수치적으로 고찰하고, 끝으로 중인층의 西教 수용의 역사적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一, 초기교회의 中人指導者

1795년 周文謨신부의 입국과 그 해에 벌어진 乙卯失捕事件⁽²⁾을 기준하여 초기 한국 천주교회를 그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각 기에 활동한 지도적 교인들을 고찰할 때 그들의 社會的 性向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교회를 창설하고 전교활동을 펴 초기 교회 발전에 헌신한 지도적 교인은 양반신분의 李承薰·李榮·權日身·丁若銓·丁若鏞·洪樂敏·尹有一·柳恒儉·尹持忠 등이었고, 중인신분으로는 金範禹·崔仁吉·崔昌顯·崔必恭·金宗教·池璜 등이 있다. 그러나 을묘실포사건 후의 후기 지도자로는 姜完淑·黃嗣永·鄭光受·丁若鍾 등의 양반교인과 崔必恭·崔昌顯과 李用謙·金深遠·崔必悌가 활약한다.⁽³⁾ 이들이 초기교회에서 차지한 위치와 그들의 受敎意識을 살펴봄은 중인층의 천주교 수용의 실상을 파악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經學과 西學에 관한 集體的 研討의 會合으로 알려져 있는 走魚寺天眞庵講學의 모임에 中人이 참가한 일은 없고, 西學書의 學問的 研究로 업적을 남긴 中人也 발견되지 않는다. (李元淳〈天眞庵·走魚寺講學會論辨〉《韓國天主教會史研究》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參照)

(2) 1795년 周文謨神父가 秘密이 入國하여 崔仁吉家에 隱身活動 중인 사실을 韓永益이 密告하여 捕卒이 긴급 출동하였으나 교회측의 재빠른 대책으로 그를 체포하는데 실패한 事件.

(3) 崔奭祐〈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朝鮮教會〉《教會史研究》2輯, 韓國教會史研究所, 1979, pp. 32~33.

(1) 譯官系中人的 西教 受容

흔히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主體勢力은 양반신도들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초기교인들은 血緣과 姻戚 관계로 얽혀져 있어 한국 천주교회의 출발은 南人家學的 背景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되어 왔다.⁽⁴⁾ 따라서 초기 교인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비교적 「안정된 신분」의 그것이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⁵⁾

그러나 여러가지 사료를 검토해 보면 한국교회 창설 초기에도 李承薰·李槩·權日身 등 양반교인과 더불어 金範禹·崔仁吉·崔昌顯 등 中人교인들의 활동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일반론적 지적은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漢譯西學書의 연구를 통한 천주신앙으로의 도달 과정에서는 中人들의 간여가 없다는 사실이다. 中人교인들의 헌신적 활동은 李承薰의 領洗와 歸國 후부터의 일이다. 즉 1784년 이승훈이 淸京으로부터 귀국한 후 그가 北京教會에서 가지고 돌아온 漢譯敎理書를 전달받은 李槩 등이 조용한 곳에 칩거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李承薰으로부터 代洗節次를 받아 정식교인이 된 후, 정기적으로 신앙집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는 과정에 비로서 中人 金範禹가 깊숙히 간여되고 있다.

李承薰이 北京서 귀국한 후 甲辰·乙巳年 間에 신앙집회를 가진 최초의 장소로 史料를 통해 확인되는 곳은 水標洞의 李槩의 집과 明禮洞의 金範禹의 집이다. 전자 李槩家는 李槩이 丁若銓·若鏞 형제와 權日身·崔昌顯·金範禹 등과 더불어 李承薰으로부터 영세를 받았던 곳으로 한국교회 최초로 西敎의 入敎節次가 행해진 장소이다.⁽⁶⁾ 그러기에 丁若鏞은 《李家煥墓誌銘》을 작성할 때 「甲辰冬」이 「始宣西敎公開之日」이라고 적었다.⁽⁷⁾ 한편 후자, 金範禹家는 초기 교인들이 모여 定期的 信仰集會를 가지게 된 곳이다. 이 신앙집회인 「聚會」가 시작된지 몇달 후 秋曹禁吏에 의해 적발됨으로써 숨겨져 있

(4) 山口正之 <朝鮮天主敎의 性格>《朝鮮西敎史》雄山閣, 1967, pp.191~196.

(5) 金翰奎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敎會의 몇가지 問題>《敎會史研究》第2輯, p.61.

(6) 《推案》李承薰 供辭 8月 12日條 「矣身與丁若鏞若銓權日身輩 集會於李槩家而果有代洗等事 依倣其書而爲之」. 《推案》李承薰供辭 辛酉 2月 4日條 「甲辰年 李槩家領洗崔昌顯」.

(7) <貞軒墓誌銘>《與猶堂全書》「甲辰之冬亡友李槩 在水表橋 始宣西敎公開之日」.

던 한국 천주교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 여론이 비등케 된다. 그 결과로 집 주인인 金範禹는 「道場主」로 몰려 악형을 받은 끝에 丹陽 땅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 신앙 집회활동이 적발 될 때 김범우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李榮, 李承薰, 丁若銓·若鐘·若鏞 삼형제와 權日身 부자였다. 김범우 석방 교섭차 刑曹에 나가 權日身과 더불어 시위를 벌였던 李潤夏·李寵億·鄭涉 등도 金範禹집 신앙집회에 드나들었던 초기 교인으로 단정된다.⁽⁸⁾ 이 明禮洞 金範禹家 신앙집회에는 이상 서울의 양반 자제들만이 출석한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생겨나는 內浦지방 신앙 공동체의 주동인물인 李存昌, 湖南신앙공동체의 지도자의 한사람이 되는 尹持忠 등도 출입하였음이 알려져 있다.⁽⁹⁾ 金範禹家는 한국 천주교회사상 최초의 정기 신앙집회가 열리던 교회였던 것이다. 즉 자주 신앙집회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여러가지 漢譯天主教書가 간직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드나들며 교리서에 접하고 마침내 西教에 입교케 되었다고 뒷날 法廷에서 신도들이 供述하고 있다. 金範禹家는 이런 점에서 초기 한국교회의 核과 같은 존재였다.

金範禹의 신분은 中人이었고 직업은 譯官이었다. 司譯院서 실시되는 譯科 합격자 명부인 「譯科榜目」에 그의 역과 합격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즉 그는 乾隆 癸巳年(1773 AD)에 실시된 譯科增廣試에 二等級으로 합격하였고, 최종 관직이 漢學偶語別主簿였음이 실려 있다. 한편 그의 동생인 金績禹도 형보다 10년 뒤인 乾隆 癸卯年의 譯科式年試에 합격하였음이 역시 「譯科榜目」에 나와 있다. 이들의 부친은 院判官, 조부는 武萬戶를 지냈다 한다.⁽¹⁰⁾ 그가 事大使行따라 北京에 들어갈 기회를 가졌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직책이 漢學偶語였으니만큼 청국과의 외교 교섭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그는 대륙 정세와 문화 동향에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8) 《關衛編》卷三. 乙巳秋曹摘發 條.

(9) 《正宗實錄》15年 11月 戊寅 「持忠供癸卯春參榜於進士 甲辰冬留京中 適往明禮洞中人金範禹家 家有二冊 一則天主實義 一則七克」.

《李家煥等推案》李存昌供辭 「供曰學得於中人金範禹矣…矣身前日爲此學時 以金範禹爲魁 得其書冊而學之」.

(10) 司譯院榜目 乾隆癸巳增廣

金範禹 正之 慶州人 漢偶別主簿 弟 亨·觀·績·履 從六品
辛未 父院判官義瑞 祖武萬戶慶興 曾漢教翊漢 外南陽洪億錫漢押 岳川
寧玄裁淵

司譯院榜目 乾隆癸卯式年

金績禹 懋功 慶州人 漢聰 兄 範·觀·亨
乙酉 父院判官義瑞 祖武萬戶慶興 曾漢教翊漢 外南陽洪億錫漢押 岳善
山金德采.

또한 대륙에서 들어오는 西洋文物이나 漢譯兩學書 등과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金範禹는 일찍부터 李榮과 가까운 사이여서⁽¹¹⁾ 그와 더불어 李承薰으로부터 넘겨 받은 교리서를 연구 검토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李榮家에서 李承薰으로부터 代洗를 받아 초기 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金範禹는 초기 신앙집회의 장소를 제공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오는 인사들을 권면하여 입교케 했다. 그의 권면으로 천주교에 입신한 교인들이 많았다.

Dallet의 「한국교회사」에 의하면 李榮에 인도되어 교인된 사람으로 丁若銓·若鏞 형제 등 양반과 崔昌顯·崔仁吉·金宗教·金範禹·池璜 등 중인, 그리고 權哲身·日身 형제, 李存昌·柳恒儉·尹持忠·洪樂敏 등 지방인 다수를 거론하고 있다.⁽¹²⁾ 그러나 Dallet의 한국교회사 이외의 다른 史料인 《Gouvéa 書翰》,⁽¹³⁾ 《De Ventavon 書翰》,⁽¹⁴⁾ 《黃嗣永帛書》, 《關衛篇》, 《邪學懲義》나 《推案》과 正宗實錄 등에는 李承薰과 丁氏 형제, 崔昌顯만이 李榮으로부터 감화되어 입교하였을뿐,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李榮 이외의 인물의 전도로 입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金範禹家에는 京鄉의 초기 신자들이 드나들었다. 尹持忠·李存昌·權日身 등도 그의 집에 드나들면서 漢譯天主教書를 접하였고 마침내 천주신앙을 봉행하게 되었다고 실트하고 있다. 金範禹家에는 天主實義·七克 등 교리서가 있어 각 계층의 지식인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만큼 잘 알려졌던 장소이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金範禹의 권면을 받고 입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는 같은 中人계층에 대한 전도에 더 열심이였다고 보인다. 뒷날 한국천주교회를 위하여 뜻있는 활동을 펴게 되는 崔仁吉이나 崔必恭⁽¹⁵⁾.

(11)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Paris, 譯註本 《韓國天主教會史》上 (安應烈譯, 崔奭祐註로 1979년 韓國教會史研究所서 刊行). p.317. (以下 Dallet: 韓國天主教會史로 略記)

(12)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p.308~316.

(13) 1797年 8月 15日付로 당시 北京教區教區長인 Alexandre de Gouvéa 主教가 四川教區教區長인 De saint Martin 主教에 보낸 書翰. 長文의 서한이며 조선 교회의 탄생과 초기교회에 관해 연락하고 있다.

(14) 北京駐在 De Ventavon 神父가 1784年 11月 25日付로 西洋의 한 친구에게 보낸 書翰. 朝鮮教會 탄생을 알리고 있다.

(15) 《邪學懲義》弗威文化社影印本, 韓國教會史研究所刊, 1979, p.171(以下 《邪懲》으로 略記)

金宗教⁽¹⁶⁾・許涑⁽¹⁷⁾ 등도 그의 권면으로 입교하였다. 한편 洪翼萬⁽¹⁸⁾ 邊得中⁽¹⁹⁾은 김범우와 상종하면서 천주신앙을 얻게 된 양반교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金範禹는 단지 그의 집을 신앙집회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의미뿐 만 아니라, 교회 창설의 주역자의 한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천주신앙을 심어준 대표적 포교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교회 창설의 主役은 李樂 혼자만이 아니라 李承薰과 더불어 中人譯官 金範禹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이해하여야 한다.⁽²⁰⁾

金範禹는 8형제였는데 그와 더불어 신앙을 실천하게 된 자는 제재동생 履禹와 일곱째 동생인 顯禹였다. 한편 1827년에 체포되어 다음 해 大邱에서 옥사한 金世博도 金範禹의 친척이었다.⁽²¹⁾ 履禹・顯禹 두 형제도 형 範禹의 권면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었다.⁽²²⁾

金顯禹는 1795년에 조선에 입국한 周文謨신부가 비밀리에 사목활동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의 집을 매달 열리는 천주신앙 봉행의 典禮인 「瞻禮」 거행 장소로 제공하였다. 즉 그의 집에서는 매달 7일에 崔必悌・李用謙・孫景允・玄啓欽・孫俊烈과 그의 兄 履禹등 중인 출신 교인들이 모여 周文謨신부를 모셔다 미사禮節을 지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의 집은 자주 신앙 예절이 행해 지던 비밀교회였다고 하겠다.⁽²³⁾ 이러한 활동때문에 顯禹는 辛酉迫害 때 西小門 밖 형장에서 참수되어 殉教하였고⁽²⁴⁾ 履禹는 포도청에서 杖殺되어 순교하였다.⁽²⁵⁾ 이처럼 金範禹만이 아니라 그의 동생들도 초

(16) 《邪懲》 p. 112.

(17) 《邪懲》 p. 286.

(18) 《邪懲》 p. 123.

(19) 《邪懲》 p. 161.

(20) 鈴木信昭 <李氏朝鮮における天主教受容時の中人層の役割>《東洋大學 東洋史研究報告 II》 東洋大學文學部史學科研究室, 1983. 도 같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21) 金世博은 서울 譯官집안 후손.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教理書를 베껴 배포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교세확장에 공헌했다. 그는 1828년 大邱서 獄死殉教했다 (Dallet 卷上 pp. 177~181).

(22) 崔奭祐 <金範禹의 생애>《교회와 역사》 제150호, pp. 21-2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11. 25. 및 《懲義》 p. 82 顯禹供辭 「捕廳招矣兄履禹學邪書於長兄範禹」

(23) 《邪懲》 p. 82. 「近年以來 與崔必悌 李用謙…矣兄履禹 聚會矣家 邀來神父留宿 每月七日設瞻禮之具 而掛教主像於房內 鋪陳帳帷方席等物 後神父主坐 矣兄弟及 諸漢列坐 誦學邪書 家中女人 在窗外傍聽爲之者 果非 一二次矣」.

(24) 《邪懲》 p. 82. 「辛酉五月 二十二日正法」.

(25) 《邪懲》 p. 175. 捕廳杖斃罪人秩.

기교회를 위해 공헌하였고 순교를 서슴지 않은 신심의 소유자였다.

한편 한명의 聖職者도 없이 창설된 조선교회였기에, 교회 창설 수년 후 이른바 「聖職者迎入運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운동에 따라 한국교회를 위해 조선왕국에 최초로 숨어 들어온 성직자가 周文謨신부였다. 주문모신부 영입의 주역의 한사람은 中人譯官家門 출신의 崔仁吉이었다. 崔仁吉은 이보다 앞서 1784년 乙巳秋曹事件으로 金範禹가 옥에 갇혔을 때 자신도 천주교도이니 같이 처벌해 주기를 刑曹에 요구하고 나서 10여일 같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인물이기도 하다.⁽²⁶⁾ 한편 崔仁吉은 1791년에 조상제사문제로 辛亥迫害가 벌어졌을 때 다시 다른 증인출신 교인들과 같이 투옥되었었다.⁽²⁷⁾ 이 「辛亥迫害」는 천주신앙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된 사건으로 주목된다. 즉 「補儒論的」 天主信仰은 이제 제사문제로 말미암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천주교 수용태도이었으므로, 유교적 혼돈을 청산하고 天主教 本來의 신앙으로 轉化되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신학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西教를 수용했던 초기교인 대부분이 신앙생활에서 탈락했거나 또는 교회 지도직에서 후퇴하였다. Dallet는 “훌륭한 지도자는 사라졌다. 하기는 사베리오(權日身)의 형 암보로시오(權哲身)와 정씨네 형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성격상 천주교회의 일에는 별로 간여치 않았고, 그들이 교회를 지도하였음을 볼 수 없다. 이 무렵교회의 지도자는 中人출신의 崔昌顯(號: 貫泉 또는 冠泉으로도 기록에 나온다) 요한과 崔仁吉 마티아였다”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지도자로 崔昌顯과 崔仁吉을 지목하고 있다.⁽²⁸⁾ 이들은 양반지식인들이 학문 연구로 도달했던 補儒論的 天主信仰에서 보유훈을 청산한 天主信仰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기의 새로운 지도자로 활동케 된 것이다.

黃嗣永은 그의 「帛書」에서 崔昌顯이 한국교회 최초의 總會長 즉 신자집단의 대표자였다고 證言하고 있다. 신앙도 투철하였거니와 교리에 매우 밝아 모든 사람에게 교리를 강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강론듣기를 즐겼으며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北京主教에게 崔昌顯의 활동상을 통보하는

(26) 《秋官志》乙巳春甘結條 「又有崔仁吉以同看其書 願同被罪 故責以蒙駭 決杖與 範禹 同囚十日 以更勿崇信之志 曉諭加杖放送」

(27) 《正宗實錄》15年 11月 11日 壬午條 「刑曹啓言 捕得邪學罪人 鄭義熾崔仁吉李仁成孫景允玄啓溫許凍金啓煥金德命崔必悌崔仁喆等十一名 或於曹庭曉諭感化 或令渠家墾請回悟」

(28)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p. 371~372.

기록을 작성하였었다.⁽²⁹⁾ 당시 교회내에 유교사회 최고 신분층인 양반 교인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中人身分の 崔昌顯이 總會長의 중책을 맡아 보았음은 그의 개인적 뛰어난 데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파격적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신앙저변에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사랑의 나눔을 내세우는 그리스도신앙의 價値意識이 깔려 있었다고 할 것이다. 崔昌顯이 초기의 總會長이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榮譽일 것이나 한편 인간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의 본질이 그대로 실천되는 社會的 福音의 표징이었던 것이다.⁽³⁰⁾

崔昌顯을 중심한 지도적 교인들은 전교에 힘쓰는 한편, 평신도만의 교회였던 한국교회의 敎階的 發展을 위하여 神父를 맞이해 들이기 위한 聖職者 迎入運動⁽³¹⁾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반교인 尹有一과 중인교인 池璜을 조선 교회의 밀사로 北京主教에 파송하는 한편, 영입될 성직자의 숙소 준비와 생활 주관을 中人인 崔仁吉에게 담당케 했다. 이 운동으로 조선에 잠입하게 된 周文謨신부는 崔仁吉의 집에 은신하면서 한국교회 최초의 성직자로 聖務를 집행하게 되었다.⁽³²⁾ 崔仁吉이 譯官집안 출신이기에 淸語를 해득할 수 있어 朝鮮語를 익히지 못한 周文謨 神父에게 우리말을 교수하는 한편, 그의 수족으로 생활을 돌봐 주는 가운데 周神父가 성무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周神父의 밀입국과 성무 집행의 비밀은 한 배교자의 밀고로 드러나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직전에 그 정보를 입수하고 周신부는 여성지도자이던 姜完淑 집에 피신할 수 있었다. 崔仁吉은 주문모 신부를 가장하고 있다 체포 연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주신부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乙卯失捕事件으로 崔仁吉은 주신부를 영입한 尹有一·池璜과 더불어 京獄에서 처형되어 순교하였다.⁽³³⁾

(29) <黃嗣永帛書> 32-33行 「總會長崔若望昌賢 中路人也 乙卯致命人崔瑪弟亞之族姪 家傳眞實之訓 聖教到東 首先進教 平和謹慎 公明精勤 二十年如一日…講道詳明有味 雖談說天然 不圖悅聽 而人皆樂聞 不知厭倦 入人寢深 聽之者大有神益…亦無瑕之行 德望爲教中第一人 人無不愛信」 崔昌賢은 곧 崔昌顯이다.

(30) 崔昌顯은 1789년에 朝鮮教會에 假聖職組織이 편제되었을 때의 神父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1791년 辛亥迫害 이전에 總會長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31) 한국천주교회는 西學書 연구를 통해 補儒論的 天主信仰에 도달한 인사들이 自律的으로 창설한 것이기에 天主教會를 주도하는 聖職者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에 한국교회가 敎階制의 教會法的 教會가 되기 위해 정식으로 聖職者를 迎入하여야 할 必要가 있었다. 崔昌顯·崔仁吉 등이 이 일을 추진하였다.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 273.)

(32)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 378.

이 乙卯失捕事件을 전후하여 崔昌顯은 「教中領首」로 박해당국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되어⁽³³⁾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는 이 위험 속에서도 教理書籍을 書寫하여 교인들에게 반포하였으며, 또한 漢譯教理書인 「聖經直解」를 한글로 번역하여 교인들에게 읽히는 등 文書傳道에 큰 공을 쌓았다.⁽³⁴⁾

辛酉迫害 때 「洋舶請來事」를 모의⁽³⁵⁾ 하였다고 심한 문초를 받는 끝에 순교하는 柳觀儉, 尹持憲⁽³⁶⁾ 등에게 洋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목되어 黃嗣永과 같은날 西小門 밖에서 참수된 玄啓欽도 역관계의 증인이었다. 그는 신유박해 보다 2년 앞서, 마침 東萊龍唐浦에 내항한 英國船을 탑승해보고 “이 배 한척이 족히 우리나라 배 100척에 필적될 수 있다”⁽³⁷⁾는 謠言을 유포하였다고 비난받았던 것이다. 玄啓欽도 초기의 지도적 교인이었기에 그의 이런 관찰이 일부교인들에 영향을 끼쳐 「洋舶請來」의 구상이 柳觀儉·尹持憲 등에 의해 논의되었고, 또한 黃嗣永의 「武力開教」의 구상까지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³⁸⁾

한국천주교회상 또 한 사람의 특기할 中人譯官教人은 劉進吉이다. 堂上譯官이던 그는 丁夏祥과 손잡고 8차나 北京教會에 드나들며 조선교회의 튼튼한 발전기반을 이루고자 「성직자의 파견과 조선교회에 대한 영속적 대책」을 촉구하는 對教皇請願書를 작성 발송하였고, 그 결과로 마침내 1831년 朝鮮教區가 設定되고 巴里外邦傳教會가 사목을 담당케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졌다.⁽³⁹⁾ 그러나 劉進吉은 뜻있는 업적을 올린 中人教人이기는하나 경우 교회가 창설된지 40여년 후의 일이므로 本稿에서는 논외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기 천주교회의 핵심이 양반지식인들이었다

(33)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 380. 實錄에는 「乃於半夜無知之中急急收殺」이라고 기록되고 있다(《正宗實錄》19年 7月 癸丑條)

(34) 〈黃嗣永帛書〉 34行 「趙和鎮之廉問湖中也 己知崔冠泉爲教中領袖 但不知其名與居住 故不能捕獲」

(35) 「聖經直解」는 中國 예수會神父 Emmanuel Diaz(陽瑪諾)에 의해 譯述된 漢譯教理書로 主日과 瞻禮의 念經과 함께 그것을 註한 책. 崔昌顯이 이를 한글로 번역했다. (崔奭祐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教會〉《教會史研究》2輯, p. 24.)

(36) 朱明俊 〈天主教 信徒들의 西洋船舶請願〉《教會史研究》3輯, pp. 47~71 參照할 것.

(37) 黃嗣永帛書 112行 「數年前 大西洋商船一隻 漂到我國東萊 有一教友 登舟細見 回言即此一隻足敵我國戰船百艘云」.

(38) 黃嗣永帛書 109~112行에 제기된 黃嗣永의 제안.

(39) 李元淳 〈朝鮮教區 設定의 歷史的 契機〉《韓國天主教會史研究》韓國教會史研究所, 1986, pp. 141~166 參照.

는 종래의 전해는 결코 정곡을 지른 것이 못됨을 알게 되었다. 漢譯西學書를 가지고서 그것을 연구하여 補儒論的 天主信仰에 도달한 것은 實學的 經學에 힘쓰며 朝鮮西學에 노력했던 양반지식인이었으나, 그 신앙을 토대로 교회를 창설하게 된 과정에는 李承薰·李槃과 더불어 中人譯官 출신의 金範禹가 깊숙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그 후의 교회 발전과 전교 활동에 있어서는 성직자영입운동의 주역이던 崔仁吉·池璜, 최초의 총회장이었으며 교리서의 謄譯과 傳寫 반포에 의한 전교에 공을 세운 崔昌顯, 주문모신부에 의해 조직된 明道會의 六會⁽⁴⁰⁾ 집회처를 제공하였던 洪翼萬·金勵行·玄啓欽 등 미사典禮인 瞻禮 예절의 장소를 제공한 金履禹·玄啓濶·鄭光受 등의 활약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譯官家門 출신의 中人들이었다. 비록 그들의 학문은 양반지식인들에 비해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믿음만은 철저하였으며 힘써 교리를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앙을 나누기 위한 전교활동에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性理學에 대한 집착성이 양반 교인들에 비해 덜 하였다. 그러기에 辛亥迫害 때 초기의 양반지식인 교인들은 祖上祭祀 문제로 신앙 실천에서 대거 탈락 또는 후퇴하였으나 中人교인들의 배교는 거의 없었다. 물론 그들 모두가 譯官職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中人技術職者로 正職에도 오를 수 있었던 譯官家門의 후예였던 것은 史料에 명백하다.⁽⁴¹⁾

그들은 事大使行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 대륙문물을 직접 견문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家門 배경과 家業 관계로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졌었고 또한 신문화에 대한 문화적 개방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선 후기사회라는 문화적 폐쇄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신분계층보다 開放的이고 進取的일 수 있는 사회신분이었다. 이러한 신분 출신이기에 전통사회의 文化價値와는 매우 이질적인 西教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천주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관인 천주교의 신분해방의 성격을 이해할

(40) 明道會는 周文謨 신부가 조직한 信者管理組織인 동시에 傳教活動을 위한 조직이었다. 黃嗣永은 이 조직에 관해 「洋教有明道會 或三四人 或五六人 爲一會 先以名字報于神父 後爲神工 神工者即察學以教人也 一年之內 神工勤者許入於會中 其不勤者拔之」라고 기록하고 있다(黃嗣永帛書 202行) 한편 明道會의 세포조직을 六會라 불렀는데 六會는 黃嗣永·洪文甲·洪翼萬·金勵行·玄啓欽 등의 집에서 열렸었다는 바, 後三者는 中人층 신도이다.

(41) 譯官中人에 대한 研究는 金良洙 <朝鮮後期譯官에 대한 一研究>《東方學志》39輯, 延世大, 1983과 鄭玉子 <朝鮮後期技術職中人>《震檀學報》61, 震檀學會, 1986을 參照할 것.

수 있었다. 그러기에 生의 위험속에서도 이를 굳건히 믿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봉건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현실의 불행을 제도적·물질적인 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정신적 차원에 구해 새로운 인간적 가치의 종교세계로 젖어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현실 모순과 고난의 극복 방도를 정신적 해방과 신앙적 永生에 추구하였던 것이다.

(2) 醫藥系 中人의 西敎 受容

초기 한국교회사 관계 史料를 검토해 보면 醫藥局을 경영하면서 자기 약방을 信仰集會의 거점으로 제공하거나, 약방에서 전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교회 발전에 공로가 큰 醫藥系中人 교인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인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교회의 지도자로 崔必恭과 그의 從弟인 崔必悌를 들 수 있다. 1801년 辛酉迫害 때 순교한 崔必恭은 신유박해에 앞서 1791년 珍山에서의 祖上祭祀문제로 벌어진 辛亥박해에 연루되어 서울에서 체포 투옥된 일이 있었다. 이때 완강하게 배교할 것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權日身의 간절한 권고로 한 때 천주신앙을 취소하고 석방된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이미 그는 「邪學罪人中愚迷最深者」로 지목될 만큼 열렬한 신자였다.⁽⁴²⁾ 그는 金範禹의 감화를 받아 입교한 醫官집안의 후손이었다. 그가 회두하여 석방되자 正祖는 특명으로 그를 關西審藥의 관직에 임명하였다. 이 자리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책이어서 醫官들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였다. 崔必恭이 다시금 일시적인 배교를 누우치고 교회로 돌아와 열심으로 전교활동을 펴게 되는 것은 1795년 周文謨 신부의 입국 후의 일이다.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서울 楸洞에 藥房을 차리고 교인들의 집회장소, 입교 예비자의 교육장소로 활용하였다. 그 자신은 洪文甲家의 明道會 집회에 나가 교인들과 신앙집회를 가졌다.⁽⁴³⁾ 그는 종래부터 당국의 지목을 받는 처지였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활동하다가 마침내 체포되고 신문받은 후 순교하였다. 그의 신분은 비록 中人이었으나 正祖의 특별배려를 받았던 인물이었고, 주문모신부 입국 후 선택된 지도적 교인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쌓았다. 그의 감화로 천주신앙을 수용하게 된 사람들의 供述이 史料에서 자주 눈에 띈다.⁽⁴⁴⁾

(42) 崔必恭의 生涯와 信仰에 言及하고 있는 史料는 여러가지가 있다. 《關衛編》《李家煥推案》의 崔必恭 供述. 《黃嗣永帛書》. 《耳溪集》의 崔必恭傳과 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

(43) 《邪懲》 p. 74. 崔必悌 供述.

(44) 《邪學懲義》에 의하면 孫敬允과 敬郁 형제, 金啓完, 金義浩, 金得浩, 曹召史 등

崔必恭의 從弟이던 崔必悌도 약방을 경영하면서 그 장소를 信心集會所·傳道據點으로 활용한 中人교인이었다. 그의 同學人으로서 中人으로는 鄭仁燮·崔仁喆·白尙玉·孫敬允·孫敬郁 형제·孫敬允의 從弟인 孫俊烈과 孫景武·李鶴達·玄啓欽·金履禹와 顯禹 형제·吳玄達 등, 양반으로는 黃嗣永·申與權·南必容·南悌 부자, 尹鐘百·李鉉·洪正浩·李國昇·洪弼周·金日浩 등이 지적되는 데 이들은 모두 崔必悌의 藥房을 드나 든 사람들이었다. (45) “中에 處身하여 上下의 敎人을 承接하였다. … 朝夕으로 모여 講하였다”는 刑曹路의 問目에 비추어 보아 양반·중인·상민·출신의 교인이 崔必悌 藥房서 자주 모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46) 뿐만 아니라 崔必悌는 李存昌과도 자주 만나 교리를 논하였고 金履禹나 洪文甲 집에서 열리는 明道會 집회와 瞻禮에도 자주 참석한 지도적 교인이었다. (47)

辛酉박해 때 지방으로 유배된 孫景允·景郁 형제도 醫官가문 출신이면서 약국을 경영하였고, 그의 사촌이며 玄啓欽의 사위이던 孫景武도 서울에서 약국을 차렸었다. (48) 이들의 약국도 崔必悌의 그것과 같이 瞻禮를 지내고 교리를 강론하던 장소였다. 醫官家門 후예로 약국을 경영하던 中人교인들은 대개가 「通衢」 즉 큰 거리에 약국을 마련하여 영업을 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은 가운데 자주 「聚會」할 수 있었다. (49) 孫仁元은 南門 밖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전교활동을 펴다가 체포되어 순교한 中人교인이었고, (50) 鄭仁燮도 약국을 두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天主實義 등의 漢譯敎理書를 제공하여 천주신앙을 깨우치도록 도왔다 한다. (51) 이 鄭仁燮은 崔昌顯으로부터 빌린 한글교리서를 보고 입교한 교인이었다. (52)

중인층 교인들이 경영하는 약국에서의 약값은 매우 저렴하였는데, 이것도 전교의 의도와 그들의 천주신앙 실천의 한 방법이었다. 楊根의 양반 尹翬이 딸아이 약을 구하고자 서울에 上京하였을 때, 崔昌顯의 안내로 그의 친척이

이 그의 전도로 入敎했다 한다. (邪懲, p. 27, 132, 138, 195, 270, 309.)

(45) 崔爽祐 <前揭論文>《敎會史研究》2輯, p. 35.

(46) 《邪懲》p. 74~77. 崔必悌 供辭

(47) 《邪懲》p. 82. 金顯禹 供辭

(48) 孫敬允은 安國洞, 孫景郁은 慕華館 밖, 다만 孫景武의 경우에는 「設局通衢」로 기록되어 그 장소는 명확치 않다(《邪懲》p. 132, 309, 264).

(49) 《邪懲》p. 74. 崔必悌問目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承接上下之兇徒托名藥局聚會去來之妖人 隱然爲邪學之淵藪」.

(50) 《邪懲》p. 55. 辛酉 4月 29日

(51) 《邪懲》p. 154. 黃田浩 供辭

(52) 《邪懲》p. 77. 鄭仁燮 供辭

경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구하였다. 이 때 약값이 매우 저렴한데 놀라 그 연유를 물었다. 이 때에 崔昌顯로부터 “天主는 하늘에서 人心의 善惡을 살피고 있는데, 비록 약값이라하여도 함부로 터무니 없는 값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답을 듣고 이때부터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천주신앙을 수용하였다 한다. (53)

醫藥系의 中人으로서 신자가 된 분들의 천주사업은 譯官系 中人의 활동과 이처럼 달랐다. 譯官系 中人是 시기적으로 먼저 양반출신교인과 교회를 창설하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교회의 기초를 굳혔으며 조직적 전교 활동을 폈다. 이에 대하여 醫藥系 中人的 그것은 약국·약방을 큰거리에 설치 운영하면서 신앙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교리를 강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약국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교활동을 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비록 약국을 경영한 것은 아니나, 醫官系가문 출신인 교인 金宗敎는 교회창설 당시에 崔昌顯·崔仁吉 등과 같이 입교한 교인으로서, 교리 연구에 몰두하여 李槃조차 그를 존경하였다 한다. 그도 초기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中人系의 교인이었다. (54)

醫藥系 中人 출신교인들은 알뜰한 신앙집회 활동을 통하여 일단 뿌려진 천주신앙을 市井社會에 확산시키고 신앙을 다져나간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二. 초기 천주교회의 中人信徒

前章에서 초기 교회에서 대표적 증인 교인들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인 교인들의 西教受容과 교회 내에서의 위치와 공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譯官系 증인들의 西教受容이 시간적으로 앞섰으며, 교회 창설과 성직자 영입, 교회의 조직적 영도활동을 통해 교회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한국천주교회의 初創과 초기 發展이 兩班知識人 중심이었다는 종래의 통설은 是正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편 醫官系 증인은 시기적으로 譯官系 증인의 경우보다 西教受容이 다소 뒤지며, 「通衢」 즉 큰 거리에 약방·약국을 경영하면서 그 약방·약국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신앙

(53) 《邪懲》 p. 251 「四年前 因女息之病 上京製藥於昌顯之族人 名不知崔哥藥局之際 藥價太歇 故矣身恠問其由 則昌顯言內 天主在天 察人心之善惡 故雖於藥價 豈可濫捧乎云」

(54)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p. 522~523.

집회와 전교활동을 주도하였고 신앙의 사회적 정착에 큰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譯官系와 醫官系 증인만 천주신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증인들도 천주신앙을 받아들였었다. 또한 서울 거주의 증인만이 천주교회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증인 가운데서도 교회활동·신앙생활에 합류한 교인도 있었다.

예컨대 교회 초기에 尹有一과 더불어 北京교회와의 연락을 담당하여 마침내 周文謨 신부를 영입하였던 池璜(推鞠案에는 池洪, 李基讓推案에는 池璜 그리고 邪學懲義에는 池洪·池璜 두가지로 기록되고 있다.)은 宮中樂師 집안 출신이었다.⁽⁵⁵⁾ 한편 成均館典僕이던 李鶴達는 초기교인들에 의해 「翹楚」 즉 뛰어난 인재로 불리웠고, 女敎人들은 中人 중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를 받들었다. 鶴達는 崔奉得·金得浩와 그의 부인인 鄭分伊 등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鄭福惠와 命福 남매도 그로부터 인도되었다. 또한 그는 韓信愛 집을 드나들며 그집 婢僕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姜完淑의 집에도 드나들었다. 그러기에 “老少를 막론하고 도처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영세시켰다”는 그의 供述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⁵⁶⁾

지방의 증인교인 몇 사람의 예를 든다면 金경서(稀成)의 부친 廣玉은 증인으로 부유하였는데 신유박해 때 大邱서 순교하였고⁽⁵⁷⁾ 또한 英陽 거주의 증인 金風憲도 龍潭에서 같은 때 순교하였다.⁽⁵⁸⁾ 瑞山の 증인 金綱伊는 1815년에 체포 투옥되었다가 原州에서 옥사하여 순교하였다.⁽⁵⁹⁾ 이 밖에도 증인 출신의 인사로 천주신앙을 수용하였고 신심활동에 활발히 관계하다가 체포되어 순교한 사람이 많다.

1784년의 교회 창설에서 1801년 최초의 전국적 박해인 辛酉迫害까지, 15년간에 천주신앙을 받아들인 교인들의 출신과 활동을 각종 史料에서 찾아 통계처리하면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 性向을 성격지어 볼 수 있다. 이미 이런 시각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⁶⁰⁾

(55)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 314.

(56) 崔爽祐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教會>《教會史研究》2輯. pp. 35~36.

(57) Dallet 《韓國天主教會史》上. pp. 64~65.

(58) 上揭書 上. pp. 397~398.

(59) 上揭書 上. pp. 71~73.

(60) 趙洸 <辛酉迫害의 分析的考察>《教會史研究》1輯. 1977. 金翰奎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韓國教會의 몇가지 問題>《教會史研究》2輯. 1979. 한편 趙洸은 위의 研究를 보다 補完擴充시켜 1985년에 高麗大에서 學位論文으로 發表한바

이제 두 연구자의 연구물을 이용하여 초기한국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신분관계를 고찰함으로써 中人層教徒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자.

두 연구(앞으로 A와 B로 구분 표시한다)⁽⁶¹⁾는 분석작업에 활용한 史料와 분석자의 解釋主觀에 따라 分析數値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초기교회 교인의 신분구조를 유추함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연구로 생각된다. 「A」의 연구는 《承政院日記》《推案》《邪學懲義》나 《關衛編》 등 여러 史料를 분석작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B」研究는 《邪學懲義》⁽⁶²⁾만을 가지고 신도의 존재상을 분석하고 있다. 「A」·「B」 두 연구 모두 辛酉迫害 발발 직전의 교인수를 약 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史料에 추출하여 분석 통계 처리 하고 있는 신자는 「A」의 경우 692명, 「B」의 경우 146명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주로 서울을 위시한 도시교인들이 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수가 전체 교인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것이어서 그 분석통계 수치만 가지고 전체 추세를 유추하는데 주저된다. 이미 그 당시 지방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도시교인을 주로 한 작업결과의 신빙성도 문제된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도시에서 발생 성장한 사실과 대체로 무게 있는 대표적 교인에 관한 기록을 사용한 통계 처리이기에 대표적 교인의 신분구조의 대강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A」 연구는 당국의 수배를 받아 검거된 692명의 체포 교인들에 관해 여러가지 분석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통계를 이용하여 問招받은 교인으로서 史料에 신분구분이 나타나 있는 교인들의 「居住地·身分別信徒數와 構成比」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⁶³⁾

身 分	小計	居住地					
		京 中	京 畿	忠 清	全 羅	其 他	
兩 班	192 (27.75)	73 (10.55)	70 (10.16)	19 (2.75)	31 (4.48)	— (0.00)	
中 人	92 (13.29)	75 (10.84)	2 (0.29)	13 (1.88)	1 (0.14)	1 (0.14)	

있다. 《朝鮮後期天主教會史研究—1784~1801》未刊本

- (61) 「A」研究는 註(58)의 趙洸이 1985년에 발표한 論文, 「B」는 金翰奎가 1979년에 발표한 論文이다.
- (62) 著者未詳, 辛酉迫害때 刑曹관계 公文書 8種을 彙輯한 책. 天主教徒에 對한 訊問日誌인 傳教奏啓와 移文秩, 來關秩, 正法罪人秩, 刑放秩, 刑放秩, 感化自現秩, 移還送秩, 酌配罪人秩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正法罪人秩에 수록된 六秩의 公文書는 各 罪人에 대한 訊問推案과 罪人の 納供文 및 結案 등 처분종류 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초기 천주교인의 여러 모습을 살필 수 있는 資料다.
- (63) 「A」연구에 수록된 信徒居住地別 總計表와 信徒居住地別 構成比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良人	178 (25.72)	103 (14.88)	11 (1.59)	42 (6.07)	22 (3.18)	— (0.00)
賤人	78 (5.49)	27 (3.90)	3 (0.43)	3 (0.43)	5 (0.72)	— (0.00)
未詳	192 (27.75)	73 (10.55)	21 (3.03)	71 (10.26)	25 (3.61)	1 (0.14)
計	692 (100%)	351 (50.72)	107 (15.46)	148 (21.39)	84 (12.14)	2 (0.29)

* () 내는 百分比

위의 표를 볼때

- (1) 초기교인의 대부분은 京鄕地方 그것도 京中에 집중하였었다.
- (2) 內浦教會가 있던 충청도에 상당수의 교인이 집중했었다.
- (3) 초기교회 신도의 신분구조는 양반 출신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양인 출신이었다.
- (4) 京中 즉 서울의 경우는 兩班과 中人 신분의 교인 즉 지식층 교인이 단연 우세하였다.
- (5) 京中 즉 서울에서는 양반출신 교인과 중인출신 교인이 거의 대등하였다.
- (6) 중인출신 교인만을 볼 때 거의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일을 추찰할 수 있었다. 학문연구로 도달한 천주신앙의 실천으로 출발한 한국교회이기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이 교회의 핵을 이루고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한편 중인 신분 교인들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함은 그들의 職務관계로 서울에 거주할 수 밖에 없던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서 연유되는 일일 것이다.

이들 중인은 대부분이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譯官系 가문출신과 醫官系 가문출신이었는데, 전자는 그의 직무관계로 당시 비교적 해외정세에 밝았고 이질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많았으며 또한 전통적인 性理學에 집착성이 적어 開放的 文化意識을 깨우칠 수 있었던 신분층이었다. 한편 譯官貿易에도 관계하여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층이었다. 후자 醫官系 가문은 正職을 제수치 못하더라도 도시에서 藥房·藥局을 경영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고, 市井巷間의 정보에도 비교적 밝았으며, 醫藥書를 통하여 그 나름의 문화적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신분층이었다. 바로 이 양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사회·경제적 특성이 그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천주신앙을 수용할 수 있게 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B」研究를 보면, 그것이 《邪學懲義》만을 분석자료로 삼았기에 그

자료에서 검출된 교인은 146명에 불과한다. 그 가운데서 신분을 판별할 수 있는 교인 140명만을 통계화하고 있다. (64)

區 分	身 分	兩 班	中 人	常 人	賤 人	未 詳	計	
							人 數	%
男		45	10	42	—	1	98	67
女		11	2	25	5	5	48	33
計	人 數 %	56 (38.3)	12 (8.2)	67 (47.9)	5 (3.5)	6 (4.1)	146	(100)

「B」研究에서는 양반과 상민 출신 교우가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 있고, 중인 교인의 수가 적어 그 구성비가 8.2%에 불과하게 검출되어 있다. 이는 분석자료의 차와 분석자의 주관적 판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나, 두 연구에서 中人 敎人의 백분비는 「A」研究—13.29%, 「B」研究—8.2%여서 현격한 차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A」研究와 「B」研究에 있어 상류지식층의 백분비를 비교해 보면 A—(양반)27.75+(중인)13.29=41.14%, B—양반 38.3+중인 8.2=46.5%여서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초기 교회의 신도 약 40%이상이 양반·중인 지식층 교인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두 연구의 경우 「A」의 研究가 보다 광범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또한 1차로 발표한 연구성과를 다시 보완한 것이기에 「A」가 「B」의 연구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A」研究者의 신분분류의 판별기준이 많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라하여도, 그것은 결국 두드러진 신도를 중심한 기록들이지 전체 교인들의 기록이 아니다. 그러기에 「A」의 통계라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초기 교회 신도의 신분구성을 정확히 분석한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박해받은 신자들의 신분 구조의 실상을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자료가 됨은 분명하다.

이상의 분석적 결과를 가지고 초기교회에서 중인층 신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첫째, 중인층 신도는 전체 교인의 약 1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비록 그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당시 사회의 신분구조의 절대 다수가 상민이고 中人은 소수계층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비율적으로 中人의 천주사상 수용율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64) 「B」研究의 表 A-1(金翰奎 前掲論文). p. 53.

셋째, 천주사상을 수용한 증인층 신도는 주로 서울에 살았으며
넷째, 교회 창설초기부터 증인들의 천주신앙 수용이 활발했다.

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에 西敎를 受容하여 천주교도가 된 中人층 신도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譯系 家門의 증인층이었다. 그들은 교회 창설, 성직자 영입, 전교 활동, 그리고 明道會나 瞻禮의 신심활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며, 초기교회 발전의 주역을 담당했었다.

三. 中人層 天主信仰 受容의 社會性

본고 (一)에서는 金範禹·崔仁吉·崔昌顯 등 譯官家門 출신의 증인들, 양반교인인 李燦·李承薰·權日身과 같이 교회창설과 초기 발전의 큰 역군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祖上祭祀 문제로 야기된 辛亥珍山事件(辛亥迫害)으로, 補儒論的 天主信仰에 한계가 들어나자 新文化受容意識을 바탕으로 천주교를 봉행하던 양반 교인들이 거의 탈락하였으며, 그후 새로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한 인물은 丁若鐘·柳恒儉·李存昌과 일련의 醫藥系 中人 교도들이었음을 밝혔다. 醫藥系 증인교도들은 거리에서 약방·약국을 경영했으며 자신의 약방·약국을 거점으로 신앙 집회를 자주 가졌고 전교 근거지로 삼았음을 살폈다. 그러한 증인층 교인은 崔必恭·崔必悌·孫景允·孫景郁·孫景武·鄭仁燦·許凍이나 金宗淳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초기교회 관계 자료를 검색하여 교회창설기의 平信徒지도자를 12명으로 압축하고 그 가운데 3명의 증인신분의 교도가 들어 있음과, 1801년 辛酉박해가 벌어지는 당시 즉 一교회창설으로부터 25년 후의 한국교회—의 平信徒지도자 32명을 추출하여 그들의 신분별 구성이 양반 9명, 증인 21명 상민 5명과 신분미상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⁵⁾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의 平信徒지도자가 점차 양반층에서 증인층으로 변해 가는 모

(65) 趙洸은 그의 論文에서 교회창설 초기의 지도자로 李承薰, 李燦, 權日身, 李存昌, 柳恒儉, 崔昌顯, 洪樂敏을, 辛亥珍山事件에서 辛酉迫害때까지 교회의 지도자로 黃嗣永, 鄭光受, 李鶴遠, 金啓完, 崔仁吉, 崔仁喆, 金伯淳, 洪教萬, 金宗教, 崔必悌, 玄啓溫, 孫景郁, 孫景允, 金宗淳, 洪正浩, 宋允中, 張德裕, 玉千禧, 鄭山弼, 金승점, 尹有一, 金履禹, 洪翼萬, 趙時鐘, 池璜, 柳觀儉, 金勵行, 玄啓欽, 李就安, 宋福明, 朴就仁, 洪弼周, 姜完淑 등 39명을 열거하고 있다.

습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新文化受容적인 학문적 수용의 단계에서, 社會的 次元의 大衆종교로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二)에서는 초기 교회 신도들의 통계적 처리에 의해 중인층 교도들의 존재상을 규명해 보았다. 중인층 교도들은 주로 京中 즉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른 신분계층의 천주신앙 수용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중인층의 천주신앙 수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 중인층의 천주신앙 수용률이 높고, 또한 입교 후 열렬한 활동으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들 중인층 신도, 특히 지도적 인물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인층 신도가 譯官系 中人和 醫官系 中人 즉 이른바 技術職 中人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醫譯系 中人 즉 기술직 중인을 흔히 「下大夫一等之人」으로 표현된다. 즉 그들은 「衣冠之族」으로 正職을 받을 수 있는 족속들이었다.⁽⁶⁶⁾ 이 점을 교회 창설기의 군주인 正祖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들 醫譯系 中人是 士族이 아니면서도 卿大夫로 나갈 수 있는 신분이니 그들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일이 있다.⁽⁶⁷⁾

正職에 오르게 되는 기술관직 종사자로 醫譯系 中人是 직책상의 전문적 기능을 체득하고 있음은 물론, 그나름대로 양반층에 버금가는 학문교양과 사회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신분층이었다. 특히 譯官은 자주 중국대륙에 사행하거나 본국에서 중국사신을 대하는 직책 담당자였기에 외교실무에도 밝았고 국제적 식견도 상당한 족속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른바 象譯貿易을 통하여 경제적 여유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다. 대륙에서 또는 국내에서 중국문명이나 漢譯의 「清歐文明」⁽⁶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성리학 집착성이 덜하여 개방성의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異質文化를 접촉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용하기 서슴지않은 선구적 자세를 지닌 계층이었던

(66) 《杏下述》附錄 輿誦 「醫譯既各以其業取人 又各以其業傳世 則他司遷擢 其法易懈 本廳常仕 其業不改 故代替年夷 不免與他文落武殊岐 遂爲下大夫一等之人也 歟…士大夫之下 有醫譯中人一種 各色雖以醫譯爲業 不失爲衣冠之族也」

(67) 《正宗實錄》18年 10月 丁卯條 「國俗專尙階分 尤重於任路 而士族以外 醫譯爲次士族然後爲卿大夫 非士族而卿大夫之資格 腰犀而頂玉者醫與譯也」

(68) 淸都 北京에 駐留하면서 전교에 종사하던 耶蘇會傳敎神父들에 의해 심어진 漢譯의 西洋關係書籍과 實用의 西洋文物技術은 淸國에 迎合된 것이기에 「清歐文明」이라고도 한다.

것이다. 물론 초기 한국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인층 平信徒指導者가 모든 현역의 正職譯官이거나 譯官 전직경력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譯官家門의 후예가 많았다. 그들은 비록 현직자는 아니더라도, 또한 전혀 관직과 관계가 없다하여도 그의 출생과 성장의 분위기가 바로 위와 같은 것이기에 西教를 受容함에 과감할 수 있었다.

한편 醫藥系 中人은 醫藥으로 正職에 오를 수 있는 기술관 중인이었다. 그러기에 그들도 의약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학문과 교양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이다. 또한 그들이 다루는 의약이 漢方醫藥과 연관되는 것이기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醫官系 中人은 正職에 오르지 못해도 市井에서 약방·약국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 사회 동태에 대해 그 나름대로 감각과 식견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넉넉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계층이었다.

이와같은 문화적 기반·사회적 감각과 경제적 지위가 그들의 신분상승의 제도적 장치가 폐쇄된 조선 후기의 숨막히는 듯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나아가 신분상승의 通淸運動에 나서게 했다. 또한 새로운 삶의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나서게 했다.

조선후기의 中人身分層은 性理學的 기반 위에 있는 봉건적 신분질서가 교착된 현실에서 그들의 문화교양과 경제적 위치의 상승에 힘입어 계층적 自我意識의 깨우침을 굳히게 되었고 士大夫 文化와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 후기 중인층의 움직임이 기술관직 중인을 중심한 委巷文化運動을 태동케 했다. 그들은 詩社를 이루어 사대부의 문예활동을 방불케하는 문예 교양을 추구하였고, 그들의 詩文集을 편찬 간행하였으며, 중인층 인물들의 傳記를 저술하기도 하였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委巷文化運動은 결국 士大夫 文化의 亞流的 활동에 불과한 것이고, 일부 중인층들의 자기 陶醉와 脫俗·自慰를 만족시켜줄 뿐, 그것은 신분상승과 인간해방을 바라는 전체 중인층의 소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세도정치 하에서의 정치적 혼선과 특권층의 가렴주구로 가증되는 사회모순의 확대는 중인들의 사회의식과 개혁추구열을 더욱 제고시키게 된다. 결국 詩社運動이나 詩文集 간행 등으로 호도될

(69) 技術職 中人의 委巷文化運動에 관하여는 다음 先行研究가 參考된다.

鄭玉子 <朝鮮後期の「文風」과 委巷文學>《韓國史學》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鄭玉子 <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後期中人層>《韓祐欣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1981.

수 없는 정도로 고조되어 마침내 보다 적극적인 신분상승의 通淸運動과 宗教沈潛의 두 방향으로 격동케 된다.

조선후기사회의 새로운 사회동향은 중기 이후로 차차 敎條化 되다시피 한 性理學的 身分體制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정신적 동향은 傳統的 性理學的 價値體系에 대한 이탈 동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후기사회의 추세를 中人層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전자는 譯官中人을 중심한 中人通淸運動으로 동태화되고, 후자는 일부 譯·醫官系 중인과 지방 중인층을 중심한 天主신앙의 수용과 그 후의 東學으로의 傾斜로 동태화되었다.

中人通淸운동은 英·正 代에 걸쳐 강화된 문화 역량과 경제 지위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의식을 계발하게 된 중인지식층이 주도한 신분상승운동이었다. 그것은 庶孽許通의 점차적 실현에 자극되어 哲宗 代에 이르러 집단적 상소의 형식으로 행동화되었던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이었다.⁽⁷⁰⁾ 通淸運動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행정사무기술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추고 전세기(18세기)에 쌓은 知的 蓄積을 기반으로하여 士大夫에 못지않은 교양을 갖추므로써, 自我實現의 돌파구를 찾아 몸부림치며 身分의 사슬을 벗어나려는 치열성을 보인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시대적 요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⁷¹⁾

조선 후기 사회의 또 하나의 중인층의 새로운 동태인 譯·醫系中인과 지방 중인층의 천주신앙 수용은 시간적으로 中人通淸運動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동태의 역사성은 中人通淸運動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전개 방향이 달랐다. 그것은 通淸運動처럼 현실적인 신분상승의 제도적 구현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수용에 의한 인간 가치 추구의 정신적 구원을 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천주신앙을 수용한 중인층에 관한 기록이 매우 零星하여 그들의 천주신앙 수용 동기를 응변적으로 확증짓기 어려운 점은 본 연구를 위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계사료에 극히 단편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입교동기를, 중인층 천주신앙 수용자에 초점 맞추어 논해 보자.

교회 창설구성원의 중핵이던 金範禹는 체포되어 문초받을 때 西學에 좋은

(70) 中人通淸運動에 관하여는 다음 論文이 參考되었다.

韓永愚 <조선 후기 「中人」에 대하여>《韓國學報》45, 1986. 와 <象譯科榜 수록 中人通淸運動資料>《위의 책》.

(71) 鄭玉子 <朝鮮後期の 技術職中人>《震檀學報》61號 1986, p.61.

점이 많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供述하고 있다. 한편 崔仁吉의 동생이며 초기에 전교활동에 헌신한 崔仁喆은 서학의 「학술이 고명」 하기에 입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⁷²⁾ 이들의 西敎受容의 동기는 西學이라는 새 文化에 끌려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바, 당시 지식인 사이의 문화 풍조로 자라고 있던 異質的 新文化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金範禹의 집에 드나들면서 수종의 천주교서를 얻어 보고 입교했다는 洪翼萬은 그가 열람한 「天主實義」의 내용이 처음에는 先王之道와 크게 달라 저항을 느꼈으나, 그 후 여러 서학서를 접하는 가운데 “文理가 트여있고, 旨義가 깊음에 끌려” 정식으로 입교케 되었다고 供述하고 있다.⁽⁷³⁾ 그도 역시 漢譯西學書에 끌리어 천주신앙을 수용한 인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문화의식이 앞서 입교하게 된 사정과는 달리 現世求福的 動機에서 천주신앙을 수용한 증인층도 있었다. 약방을 경영하던 증인 孫景郁은 黃嗣永의 권면으로 천주교를 믿게 된 인물인데, 그는 천주가 福祿을 내려 주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는 黃嗣永의 가르침을 따라 입교한 것이라고 供述하고 있다.⁽⁷⁴⁾ 물론 이 경우의 福祿을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나, 孫景郁은 당시 다른 계층의 천주신앙 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세 복락에 이끌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천주신앙 수용의 동기로 來世指向的 動機 즉 「天堂福樂」「來世永生」을 추구하는 입장의 경우가 있다. 崔必恭과 이웃하고 살다가 그로부터 전교받고 입교한 증인가문 출신 여교인인 曹召史는 「死後陞天說」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⁷⁵⁾ 이밖에도 많은 사람이 현세적 고난에서의 보상을, 내세에서 얻으려는 功利的 의도에서 입교하였다. 이런 문헌적 증거는 사회 하층민일수

(72) 《邪懲》 pp. 80~81 崔仁喆 供辭「邪學有教化王一人 只在西洋國 其附庸諸國 皆有主教及神父名 又有醫進士 道進士 文進士等職 而學術高明之人外他不得爲之」

(73) 《邪懲》 p. 123 洪翼萬 供辭. 「去乙巳年分 聞天主實義之冊 在於明禮洞金範禹家 欲爲得見 往于範禹家 潛爲將來其冊 閱覽其書 則與堯舜禹湯文武之道 大相不同 故果不沉惑矣 至於甲寅年間 又見中國出來冊子 則文理簡雅 旨義深奧 漸至駭駭 而敎中之人 猶爲不信 故種種講論於家 煥承薰若鐘嗣永等家 而受邪號於承薰 稱以安堂 亦受領洗之法矣」

(74) 《邪懲》. p. 309 孫敬郁 供辭「一日嗣永謂矣身曰 勤學聖敎則天主必降福祿 萬事自然云 故矣身 甘聽其言 惑習其書 受矣身邪號於黃嗣永處」

(75) 《邪懲》 p. 195. 曹召史 供辭「矣身與必恭 不幸作隣矣 必恭錄送邪書 故矣身信聽死後陞天之說」

록 많으나 증인층의 경우에는 이를 증거할 기록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

이상 세가지의 入信動機와 더불어 증인층의 西敎受容 동기로 눈에 띄는 것이 천주교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가치체계를 「社會福音的」인 것으로 이해하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 극복의 방법으로 삼고 입신케 된 일이다. 즉 인간 존엄·인간 평등과 화합의 그리스도적 원리를 성리학적 사회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自我實現과 精神慰悅의 원리로 이해하고, 천주신앙을 현실사회의 고달픔을 이겨낼 수 새로운 사회원리로서 구함의 가치체제로 확신하는데 있었다.

崔昌顯은 천주교가 도리에 합당한 것이기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供述하였다.⁽⁷⁶⁾ 그의 공술 속의 「道理」란 막연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입교한 후 증인이면서도 總會長으로서 교회의 모든 신도를 이끌었고, 李承薰을 중심으로 假聖職組織이 편제되었을 때 신부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교인들의 신심생활을 영도하였으며, 끝내 신유박해 때 순교한 그의 일생이 곧 그리스도 원리대로 산 일생이며, 사회적 복음의 실천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⁷⁾

증인 교인으로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한 崔必恭은 교양있는 선비라면 마땅히 천주교를 실천하여야 하며, 상민도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마땅히 천주교를 믿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⁷⁸⁾ 즉 천주신앙은 특수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지각있는 사람들은 이를 진리로 믿고 실천함이 마땅하다는 신분평등·인간평등의 사회의식이 그의 생각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식을 지니게 되어 천주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음은 증인 아닌 다른 신분출신 교인의 證言으로도 입증된다. 당당한 양반가문 출신의 교인이며 辛酉迫害 때 순교하는 金健淳은 사학죄인인 불우한 南人 또는 廢族 및 中庶人 들은 “천주교가 貸財를 통하고 身分을 混하기 때문에 신봉”한

(76) 《李家煥推案》2月 11日 崔昌顯 供辭「甲辰冬間 得見妖書於 李榮與之同見 而榮之言內 以爲比書 俱合道理 矣身亦以爲然」

(77) 假聖職組織은 聖職者없이 창설된 韓國天主敎會의 초기 교인들이 조직한 自律的 聖職組織, 이는 敎會法上 非合法的인 것이기에 假聖職組織이라 부르고 있다. Dallet에 의하면 李承薰, 權日身, 李存昌, 柳恒儉, 崔昌顯과 그밖의 사람등 도 합 11名으로 조직되었다 하나 國內 史料로 확인되는 사람은 李承薰, 權日身, 洪樂敏, 柳恒儉 뿐이다(《邪學懲義》p. 231 移還送秩 柳觀儉供辭).

(78) 《李家煥推案》2月 11日 崔必恭 供辭「大抵天主之學 有識之士子爲之 常漢中稍有知覺者亦當爲之」

다고 供述하였다⁽⁷⁹⁾ 바로 이 「通貨·通色」이라는 어휘는 박해당국자들이 「無父無君之敗倫之教」라는 명목과 더불어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유로 항상 내세우는 명목인 것이다.⁽⁸⁰⁾ 그런데 金健淳은 오히려 불우南人·廢族·中庶인들이 천주교를 수용하는 이유로 通貨·通色을 내세우고 있다. 그의 생각은 인간 평등·신분해방 등 현대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나, 「通貨」를 교인 간의 유무상통의 나뉘름으로, 「通色」을 남녀평등=인간평등=인간존엄의 실천으로 의식하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원칙으로 천주교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인들이 西教를 수용하는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다. 그것이 新文化 수용의 의식에서든지, 고달픈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來世永福에서 구하는 것이든지, 또는 조급한 생각에서의 現世求福을 바라는 것이든지 간에 그들이 천주신앙을 추구하는 밑바닥에는 천주신앙을 「救함의 원리」요, 「희망의 원리」로 수긍하는 역사의식이 깔려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性理學的 身分體制 하에서의 차대와 흑사, 관료와 특권의 횡포와 수탈, 그리고 상승과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에서 諦念과 失意에 단 빠져있을 수 없다는 사회의식의 깨우침을 가지게 된 인사들이, 사랑과 화합을 내세우고 영생과 평화를 골자로 하는 천주신앙을 「社會的 福音」으로 이해하고, 혹은 이 新文化에서 희열을 찾고, 혹은 현세의 복락을 구하고, 또한 來世의 永生을 찾아 자기 해방의 정신적 방법으로 천주신앙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인층은 그들이 지닐 수 있었던 학문교양을 바탕으로 漢譯西學書와 敎理書를 통하여 천주신앙에 접근할 수 있었고, 교리 속의 그리스도적 가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이었고, 또한 性理學的 原理에 대한 집착성이 별로 강하지 않아 개방성을 지닐 수 있었던 계층이었기에 천주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그러기에 한국 천주교회 창설 초부터 중인 교인이 생겨났다. 그들은 어느 교인보다도 교회활동이 열렬하여 교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平信徒指導者로 활약하였다. 모든 교인을 「教友」로 대하고 교인 간에 「友愛」를 다지고 유무「相通」하며 인간적 「交分」을 다져가며 신앙생

(79) 《李基讓等 推案》3月23日 金健淳供辭「且爲邪學之 即不遇南人或廢族及中庶之輩 蓋爲通貨財 混名而爲之是去 乃或沉惑於堂獄之說爲之」金健淳은 老論大家 金尙憲의 後裔로 祀孫이었다. 그후 邪學에 입교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한다.

(80) 例컨대 大司憲申耆의 上疏에 보인다(關衛編 卷3). 한편 같은 뜻으로 「悖倫亂常之徒」「絕倫敗常之教」「荒誕怪說不經之外道」「無君蔑親之論」「悖倫滅法之說」「滅絕人紀」등으로도 표현한다.

활에 힘썼다. 이러한 중인교도들의 「社會福音的」 실천을 박해자들은 “원래 사학에는 상하의 구분이 없으니 창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노비라도 밀접하게 맺어져 있으며”⁽⁸¹⁾ “노비와 같이 천한 자들도 일단 그 무리에 들면 마치 兄弟와 같이 대하여 等分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⁸²⁾”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타락하고 불량한 자들과 자포자기하여 나라를 원망하는 자들, 미천하고 불량한 무리와 남의 재물을 시기하고 음란을 일삼는 무리들이 서로 敎友라 부르면서 각기 邪號를 칭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 공격하고 있다. 이런 결단은 斥邪論言의 논리에서도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천대받는 무리들이 천주교를 받든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⁸³⁾ 바꾸어 말하면 박해 당국자들도 천주신앙 수용자들의 社會性을 심각하게 문제삼고 있었던 것이다.

中人層을 중심한 천주교 신앙수용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사회성을 지닌 것이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회 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박해 당국자들은 中人層의 특수성 때문에 사학을 받아 들인다고 사태를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 1791년 辛亥박해 때 서울에서 체포 투옥된 사학의 무리들 대부분이 신앙을 취소하였는데 崔必恭만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正祖는 中人輩는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 그 중간에 놓인 자로 가장 敎化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고 논평하였다.⁽⁸⁴⁾ 또한 사학의 무리 가운데 중인 신분자들이 많다는 문제를 左議政 李秉模와 논의하면서, 중인은 나아가 士大夫가 될 수 없고, 물러나 常賤도 될 수 없으니 스스로 큰 뜻을 버리고 진실된 일을 소홀히 하고 다소 재능이 있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 재능의 쓰일 바를 걸디어 내지 못하고 곧 망념된 생각을 품으며, 곧 사실에 빠져들기 쉬우나 그 폐해가 거센 흐름을 이루게 됨은 뻔한 일이라고 잘라 말하였다.⁽⁸⁵⁾ 즉 중인은 천주학에 빠져 들기 쉬운 약점을 지닌 계층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好學의 君主 正祖의 이러한 인식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 즉 中人이

(81) 《邪懲》 p. 259. 李在新問目「而元來邪學本無上下之分 則奴隸之口 亦且腸肚之達」

(82) 《訥菴記略》 p. 12. 「邪學法門…雖奴隸之賤 一入其黨 視之若兄弟 不知有等分 此其誑惑愚氓之術也」

(83) 《關衛編》卷六. 斥邪論言「而廢種錮孽 矢志怨國之徒 下流至愚騙財誨之輩 互稱敎友 各立邪號 藏頭隱尾 打成一片也」

(84) 《正宗實錄》15年 11月 壬午「敎曰 中人非兩班非常人 居於兩間 最是難化之物」

(85) 《正宗實錄》23年 5月 壬戌「上曰…所謂中人之名 進不得爲士夫 退不得爲常賤 自分落拓 無意於實地間 或有薄有才藝之人 不堪伎倆之所使 輒生妄想 專尙好新 所與學習者 非從事於經學之人也 以是其說易入 滔滔流弊」

스스로의 좌절감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의지가 나약하고, 경학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분층이기에 천주신앙에 빠져든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 조건과 문화 풍토가 중인들로 하여금 천주신앙을 가까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경직된 양반중심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敎條化된 성리학적 풍토에 염증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중인지식층 들이 그리스도 신앙에 내포된 신앙적 의의와 더불어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를 지각하고 이를 수용 실천하게 되었던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중인층의 西敎受容은 이런 점에서 永生의 추구인 동시에, 人間的 삶의 실천을 의도하는 현실적인 삶의 구체화였던 것이다.

結 語

中人層의 西敎受容문제를 논고함에 있어 가장 난점은, 관련 중인들의 기록이 전혀 없고 관계 사료의 기사가 매우 소략한 점이었다. 따라서 본고도 추론과 개연적 이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논고를 통하여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西敎受容과 實踐主體가 李樂·李承薰 등 양반지식인이었다는 종래의 통설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일부 中人들이 초기교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즉 譯官 출신 중인 金範禹는 李承薰·李樂과 같이 西敎受容과 신앙운동 實踐主體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초기교회의 조직적 발전에는 譯官계 중인 신도들의 공이 컸다. 성직자 없이 창설된 한국교회를 성직자 있는 제 모습의 교회로 발전 시키기에 힘쓴 崔仁吉·池璜의 공헌이 컸다. 한편 초기 교회 대표였던 總會長 崔昌顯 등의 中人교인을 빼놓고 초기 교회를 논할 수 없다.

한편 譯官系 中인과 달리 도시 큰 거리에서 약국·약방을 경영하던 醫藥系 中人신도들의 공로도 크다. 그들은 약방·약국을 거점으로 明道會의 모임인 六會나 교인들의 미사 瞻禮의 신앙집회를 주도했고, 신도들의 敎理敎育을 주관했으며, 전교활동에 진력하였다. 이들 醫藥系 中人교도들은 교회 창설 후 교회 발전을 추진한 중핵적 역군들이었다.

중인층의 西敎歸依率은 다른 사회신분에 비해 비율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었고, 대체로 중인 신도들이 주로 京鄕地方에 거주하였음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譯·醫 中인은 技術職 담당의 上位 중인이기에 외교

실무나 의약지식 관계의 교양도 있고, 어느정도의 국제적 안목도 있는 문화의식의 소유자들이었다. 한편 그들은 性理學에 대한 집념이 미약했으며, 譯官貿易·醫藥局 경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경제기반도 갖춘 계층이었다. 이러한 문화의식과 경제적 실력 및 비교적 활달한 개방의식을 지닐 수 있었던 譯·醫系 中人들은 硬直과 封鎖로 치달리기만 하는 中世 社會에서의 이탈을 모색하게 되었고 신분과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신적 慰悅과 生의 희망을 추구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중인층의 새로운 사회 동향은 士大夫文化로의 접근을 지향하는 委巷文學활동과 신분 상승을 위한 中人通淸運動과 모순과 혼돈의 현실에서 정신적 慰悅과 歸依의 價値追求를 위한 西敎受容의 信仰沈潛으로 나타나게 된다. 醫·譯系 一部 中人의 西敎受容과 信仰實踐은 종교적으로는 來世를,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삶의 價値 추구라는 정신적 의미를 지닌 역사 전개였다. 그러기에 그것은 委巷文學活動·中人通淸運動과 같은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할 朝鮮 後期 社會中人層의 한 動向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